

道, 국민의힘과 전북 미래 핵심 현안 논의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열어
전주올림픽 유치 전략 공유
새만금 메가특구·RE100 건의
금융특화·제2중앙경찰학교 논의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3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단지 구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설명하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치안 인력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준비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전북도-국민의힘 정책 간담회
지난해 12월 3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전북도-국민의힘의 정책간담회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특히 새만금을 글로벌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실증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새만금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건의했다. RE100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만금 RE100 선도산업단지 지정과,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중심

지 지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새만금 33센터 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추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체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핵심 현안을 당 지도부와 직접 공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말 보호시설' 운영 나선다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 첫 선정
전북말산업복합센터 수행 확정
말복지기준정립·산업신평제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지원' 공모에서 '전북말산업복합센터(기전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학대·유기·유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말

을 대상으로 신고-구조-보호-휴양-조련-반환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위주로 강화돼 왔으나, 말(馬)을 독립적인 복지 대상으로 다루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말은 산업적·사회적 가치가 크고 생애주기가 긴 특수 동물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 지침과 공적 보호 인프라가 부족해 현장마다 관리 편차가 크고, 학대·방치 사례가 반복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경우 퇴역마와 돌봄이 필요한 말들에게 휴양과 재활, 승용마 조련을 제공해 '제2의 마생(馬生)'을 설계할 수 있는 공적 보호시설이 처음 마련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전북말산업복합센터(기전대학교)'는 말 보호·휴양이 가능한 시설 인프라와 조련 역량, 전문 인력 양성 기능, 교육·산업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곳으로, 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행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센터가 자리한 김제시는 전북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승마·조련·말 생산·체험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은 전북 말산업의 경쟁력과 정책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는 전국 최초 말 보호시설 운영을 발판 삼아 말 복지 향상은 물론 말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말 복지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전북이 말산업과 말 복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타임스 최준호 사장 2026 신년사]

병오년 새해, 변화의 질주로
전북의 내일을 열자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병오년은 열정과 추진력, 변화와 도전의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겠지만, 새로운 길을 두려움 없이 개척해 나가라는 시대의 메시지가 담긴 해이기도 합니다. 전북타임스는 이러한 병오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변화의 파고 앞에서 한 걸음 더 감히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역시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 혼란과 불신, 반목과 갈등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이 겪었을 피로와 고단함을 생각하면 언론기관의 대표이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해도, 불평과 체념만으로는 내일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낡은 저물었으나 희망의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 자리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바로 그 길 위에서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북타임스는 병오년, 2026년을 창간 15주년의 해로 맞이합니다. 지난 15년은 지역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북의 오늘을 기록해 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15년은 미래를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도약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을 주민으로 모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전북의 발전이 곧 도민의 행복'이라는 명제 아래 도정과 시·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이고, 건설적 제언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올해 전북타임스는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비효율은 과감히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고, 독자와의 소통 창구를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과 온라인에 담아내겠습니다. 특히 독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면을 보다 다채롭고 특색 있게 구성해, 읽는 즐거움과 생각할 거리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의 공익이라고 하는 언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전북타임스는 공정성과 윤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로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을 돕겠습니다.
비능률과 관행에 안주한 기존 신문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고품격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엔 전북타임스만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특색 있는 기획과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타임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미디어 시장에서堂堂히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훈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중심을 잡는 균형추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북타임스는 '사람 냄새 나는 뉴스, 건강하고 밝은 뉴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북도민의 아침 식탁 위에 희망과 성찰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과 더 진솔하게 대화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공익적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병오년 새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社告

독자 제현께 알립니다. 전북타임스는 병오년 새해 연휴를 맞아 5일까지 휴간에 들어간 뒤 6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반해 제작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들고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상을 받아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타임스 임직원 일동 세배

전북도시가스(주)
JEONBUK CITY GAS CO., Ltd.

누구나 행복한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여러분의 가스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811-7700)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년사〉

“변화의 약속, 도민 삶 속에 꽃피워야 할 때”



김관영 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삶에도 힘찬 기운과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도전과 성과의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용기와 인내, 그리고 도정을 향한 믿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조 원을 넘어선 국가예산, 올림픽 유치 도전, 미래산업 기반 확보까지. 하나하나가 전북의 한계를 넘어선 값진 도전이었고, 도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2026년은 더이상 ‘준비의 해’가 아닌,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변화의 기반 위에 도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혼자만의 몫이 되지 않도록,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어르신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도정은 복지

특히, 전북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피지컬AI, 새만금 메가센드박스, RE100 기반 에너지 대전환 등 앞으로의 전북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선도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도정에는 더 유능한 도지사로, 도민 곁에는 더 겸손한 사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두려움 없이 전북의 내일을 향해 질주하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도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전북의 미래가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북도 연구개발특구 확대 고사…익산 지구 신설

3→4개 지구…면적 1,242㎢ 늘어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 추가 활용 낮은 혁신주거지 지정 해제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확대 변경 지정이 최종 고시 완료됐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회를 열어 전북특구 확대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 뒤 30일 특구 지정 변경 고시를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로 전북특구 면적이 기존 16,089㎢(487만 평)에서 17,331㎢(524만 평)로 1,242㎢(37만 평) 늘어났다. 특구 체계도 기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4개 지

구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편입 지역은 전주·익산·완주 일원 8개 부지로 총 3,662㎢에 달한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에는 장동 연구시설 잔여부지와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일부가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 ▲전북대 익산 특성화캠퍼스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원광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제4일반산업단지 등 5개 부지가 편입됐다.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에는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추가돼 기존 1단계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면 특구 활용도가 낮은 농촌진흥청 재배·축사 부지 1,407㎢와 전북혁신도시 주거지역 1,013㎢ 등 총 2,420㎢는 지정 해제됐다. 이를 통해 특구 운영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확대 개편은 전북특구를 ‘농생명·

첨단소재 기반 세계 일류 R&D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북특구의 특화산업인 농생명융합 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구 확대에 따라 기업·연구기관 입주 공간이 추가 확보돼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 이전, 투자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창업에서부터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사업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술사업화의 가속화로 지역 핵심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되는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 지구는 기존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원광대 등이 편입되면서 농식품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까지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전북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문승우 도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의회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는 민생 회복과 산업 전환, 복지와 안전 등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해 군산항 준설, 새만금 개발, 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도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도 착실히 마련했습니다.

2026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만드는 실행의 해입니다.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최우선 임무로 확장을 위한 조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과 농산비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주력 산업의 신기술 전환을 뒷받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전북 RE100 산업단지와 전북전주올림픽 유치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전략입니다. 의회는 기반 시설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며 경쟁력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철도망 구축과 GTX 연계 논의 등 교통망 개선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의회는 민생과 예산,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습니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특별자치도 권한, 산업 전환, 인구 위기 등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지만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더 큰 꿈을 실현하는 전북의 연인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신년사〉

“시민 삶 속으로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남관우 시의장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붉은 태양의 힘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

정마다 깃들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가 혼란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운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 싹이 단단한 나무로 자

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고,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판가름할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물론, 우리와 이웃한 지역과도 뜻을 모아 세계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주시의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전주의 내일은 어제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그 상생의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병오년 새해에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전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신년사〉

“전북교육,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정책과 투명한 행정으로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종합평

렴도 2등급급 달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습니

다.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으로 꿈을 펼쳐나갈 소중한 미래인재입니다.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탄탄히 다지고, 교실 안에서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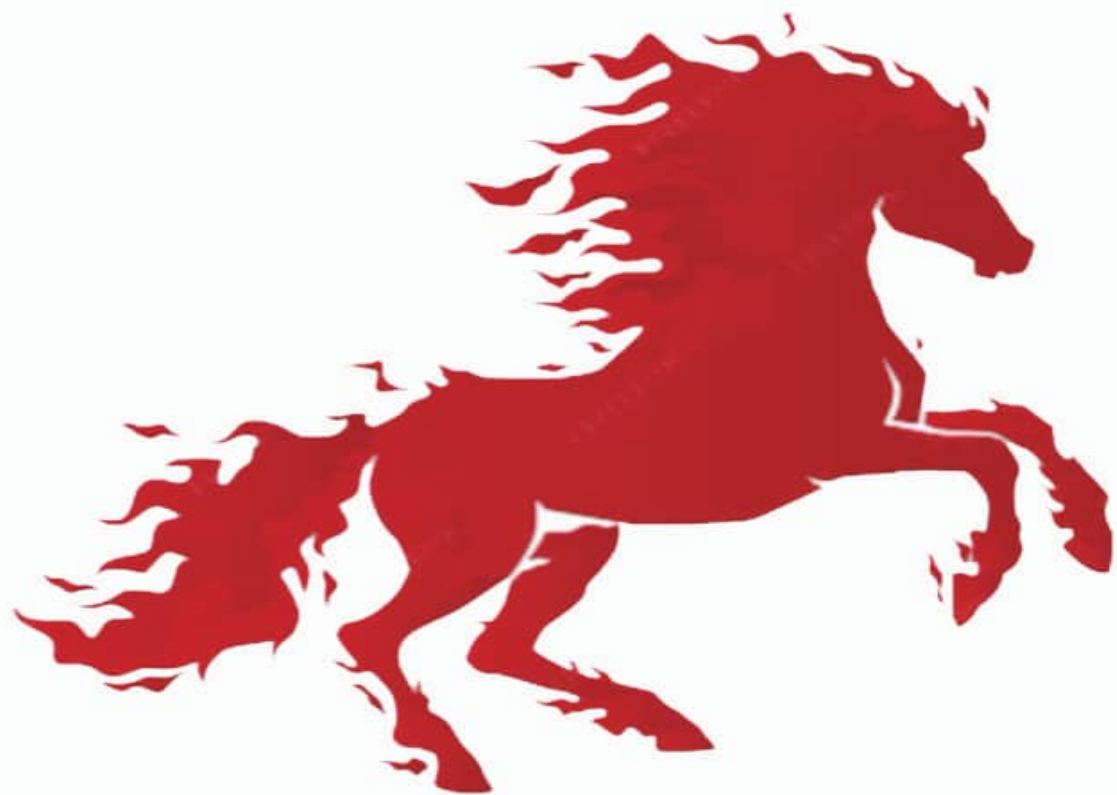
도에 맞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이 되도록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전북형 책임교육을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학

생,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기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의 어깨’는 ‘AI·디지털’입니다. 전북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현법교육, 생태전환교육,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6년도 전북교육은 한국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경제인協 전북지회 ‘매칭데이’ 효과 톡톡

정책·판로·교육 따른 경쟁력 강화…실질적 거래·협업 등 성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이하 ‘여성경제인협회’)가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른 협력창구 기능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기업 권익 신장과 경영 환경 개선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법정단체다.

설립 이후 ‘여성경제인협회’는 정책·판로·교육 연계 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

△지자체에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여성기업인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더불어 여성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의 활동도 이어왔다.

또 지역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창업·판로·교육·정책 연계를 통한 안정적 성장 으뜸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여성경제인협회’는 지역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경제인 단체로 우뚝 섰다.

▶공공구매 매칭데이 통해 회원사 판로 확대 지원

공공구매 매칭데이는 공공기관과 여성기업 간 상담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며 실질적인 구매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현장 중

심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설비업·제조업·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 22개사 참여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 현장 중심 성과 창출

2025년 7월 개최된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 지역 내 우수 여성기업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와 기관에 직접 소개하고, 여성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거래 상담과 협업 기회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여성기업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지역 여성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구매·전시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앞으로 ▷공공구매 연계 사업 ▷우수제품 판로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각 협단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위한 지원에도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본격 가동

23일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희망 기업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

으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경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한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스타트업 120개사 내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추천형’ 트랙에서는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과제 또는 중기부 지원과 연계할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접수받

는다.

트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2027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 상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하면, 이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추후 공모해 매칭, 파트너십 구축, 협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30개 내외의 협업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 및 지원기관에서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한 창업기업을 중기부에서 연계 지원한다.

먼저, 창업기업과의 동반 성장 실적 및 오픈이노베이션 역량(전담조직, 예산 등)이 우수한 기업·기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30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추후 동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된 창업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시장·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방형 혁신은 혁신 기술 도입,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기업의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기업 모두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도두 어린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신규 자원 등재

〈작두〉 사용 부위 어린 꼬투리 개선 ‘직립형 도두’ 신규 등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형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 꼬투리’로 개선됐다.

또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를 추가 등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

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쿠파노발린 에이’ 성분 분석과 국내의 문헌, 국제 식품 규격 및 섭취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부풀기 전’을 삭제한 ‘어린 꼬투리’로 식품 원료 기준을 개선했다.

새로 등재된 ‘직립형 도두’는 1m 내외로 키가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버팀대 없이도 수월하게 재배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및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이미 등재된 ‘덩굴형 도두’는 4-5m 이상 자라 버팀대 설치와 관리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이번 개선안으로 농가는 효율적인 도두 재배가 가능해지고, 가공업체는 원료 활용이 용이해 도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 꼬투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신협 ‘2025년 신협사회공헌재단’ 1억4293만원 기부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 지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25년 전북신협 48개 조합이 신협사회공헌재단에 1억4293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전북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진행한 ‘1신협·1아동’ 결연사업에 올해 47개 신협이 참여해 총 5640만 원을 후원했으며, 법인부문에서는 16개 신협이 8273만원을, 개인부문은 3명이 380만원을 기부해 48개 신협이 총 1억4293만원을 신협사회공헌재단에 전달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5년 출범한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이다. 24년 12월 말 기준 정기기부자 5618명이 참여 중이며, 누적 기부금은 652억 원에 달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한지협동조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동행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전주한지 벽지와 장

판지가 사용되며,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전북 관내에서는 10개 신협이 참여했으며, 이에 36,965,000원의 재단사업비가 투입됐다.

이후,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에서도 6개 그룹회를 추가 발굴해 총 16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추가된 6가정에 대한 시공·교체비용은 전북신협이 2200만원을 부담해 2025년 행복한집 프로젝트에 총 58,965,000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재단은 ‘인재양성’ 부문에서도 힘쓰고 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협 어부비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이 결연을 맺고 참여 임직원이 멘토가 돼 멘티 아동과 경제·금융 교육을 비롯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35개 신협이 참여해 9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고, 재단에서는 1억 2백만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다.

또한 재단은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 연계 직장신협 및 소형조합의 추천을 받아 2025년 전북



에서 7개 신협이 참여해 총 14명에게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장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자금을 전달하는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올해 전북 7개 신협이 선정돼 총 1천 4백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온세상나눔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별, 전기장난, 난로 등의 난방용품을 지원하며, 전북 관내 64개 신협이 참여해 총 47,861,500원의 재단사업비가 투입됐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김진규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구축 기여 공로 인정



김진규 교수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또 △고위험 신생아 및 조미숙아 진료 △회귀·유전·선천성대사질환의 진단과 체계적 관리 △고위험 신생아 연구를 통한 임상 진료지침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모자보건 향상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이 수행해온 공공의료 역할과 의료진의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기관으로써 모자보건 진료체계 고도화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재활의학센터, ‘Re Hope Festival’ 성료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해 12월 29일 소아환우와 가족들을 초청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Re Hope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 치료로 지친 소아 환우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즐거운 추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시작은 느루걸음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감동적인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리슨 서커스 저글링쇼와 박태영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구성과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은 행사 내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기배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치료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잠시나마 병원이라는 공간을 잊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한 소아환우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관계자는 “의료는 몸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환우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1년 개발했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5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에 비해 2.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 결과에 ‘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 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에서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분야의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산업 전반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고물가·고환율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 업종에서 거래공정성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 결과에 ‘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 ‘자동차’, ‘교부플라스틱·비금속’ 등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진안 송풍초 정선규 교사, 과학교육상 수상

탐구 프로젝트 수업 운영 등 전국 단위 우수 성과 이끌어

진안의 송풍초등학교 정선규 교사가 ‘2025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 상은 과학교육 발전에



정선규 교사

기여한 우수 교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전국에서 학교급과 지역 구분 없이 10명을 선발했다

정 교사는 교육과정 - 수업 -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학생 탐구 중심 과학 수업을 꾸준히 실천하며 과학교육 혁신을 선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초등 과학 단원을 탐구 프로젝트 형태로 재구성해 수업을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전국과학전람회로 연계해 장관상 등 전국 단위 우수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수업 전반에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해 학생의 탐구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켰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화학물질 안전관리 꼼꼼해진다

관리 매뉴얼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속 기관과 학교 등에서 각종 화학제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유해·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방법 등을 설명하는 화학물질 사용 설명서를 말한다.

급식이나 미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

의 경우 화학제품의 MSDS를 수집하는 과정이 제조업체마다 다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만든 MSDS 매뉴얼에는 △MSDS 개념 △법적 요구사항 등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MSDS 관리 지원 체계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제10대 사령탑 정정용 감독 낙점

‘원팀’ 정신 최적 인물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올 시즌 성공적인 변화를 넘어 완성으로 이끌 제10대 사령탑으로 정정용 감독(56)을 선임했다.

전북현대대는 2025시즌 거스 포엣 감독과 함께 팀의 체질 개선을 완수하며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

구단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2026시즌을 ‘전북현대모터스FC 혁신과 성장의 20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완성할 책임자로 정정용 감독을 낙점했다.

전북현대대는 2025시즌이 거스 포엣 감독 체제 아래 변화의 시발점이었다면, 2026시즌은 정정용 감독과 함께 구축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술적 디테일을 더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구단은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디테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정정용 감독이 탄탄한 이론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현대대의 부족

한 점을 채우고, 팀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선수 시절의 화려함보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하며 스포츠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의 지도력은 이미 성인 무대와 연령별 대표팀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준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이후 K리그2 김천상무의 우승(2023)과 승격을 이끌었다.

특히 김천상무 역사상 최초로 K리그1에서 2시즌 연속 파이널 A(2024~2025)에 진출시키는 등 탁월한 전술 운용 능력을 증명했다.

정정용 감독의 또 다른 강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저연령대부터 성인 선수들까지 두루 지도하며 쌓은 경험은 선수단과 깊은 교

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북현대가 추구하는 ‘원팀(One Team)’ 정신과 부합한다.

또한 유스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경험한 정정용 감독의 이력은 전북현대의 육성 프로세스를 한층 정교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단은 정정용 감독이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해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전북현대대는 정정용 선임 감독 선임과 함께 코치진도 개편한다.

김천상무에서 정정용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었던 성한수 공격 코치를 비롯해 이문선 수비코치, 심정현 피지컬 코치와 전북현대 선수 출신인 서동명 GK 코치가 팀에 합류한다.

황희훈 GK 코치는 N팀으로 자리를 옮겨 N팀과 유스팀 전 연령대 골키퍼 지도를 아우르는 ‘총괄 GK 코치’로 영역을 확대하고 정조국 코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정정용 선임 감독은 “K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의 지휘봉을 잡게 돼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스 포엣 감독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나만의 디테일을 더해, 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임 절차를 마친 정정용 감독은 2026시즌을 위해 오는 11일 스페인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N팀 권순형 선임 감독 선임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전북현대모터스FC N팀이 권순형 감독을 필두로 한 새로운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N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권순형 감독(39)은 선수 시절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미드필더 출신이다.

고려대를 졸업한 후 강원FC, 제주SKFC, 성남FC 등에서 활약하며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왔다.

선수 은퇴 후 2024년부터 성남FC U15 감독을 역임하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젊은 감각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N팀의 변화를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는다.

권순형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도 구성됐다.

정다원 코치(37)는 FC서울, 제주SKFC, 경남FC, 광주FC 등 다수의 K리그 구단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드필더 겸 수비수 선수 출신으로 실전 경험을 선수단에 전수할 예정이다.

골키퍼 포지션에는 올 시즌 A팀 골키퍼를 지도했던 황희훈 코치가 N팀과 유스팀까지 아우르는 총괄 지도를 맡게 된다.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전남드래곤

즈 유스팀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약한 이정우 코치(32)도 합류한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선수 시절부터 성실함과 리더십으로 정평이 났던 권순형 감독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상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형 감독은 “전북현대 N팀의 역할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키워내는 일이다”며 “N팀 선수들이 전북 현대에서 잘 성장해 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장정철 기자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HU

百人百色

백인백색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내인생의
COLOR를 찾는 곳!

입/학/상/담
1588-9779

군산시, SOS 틈새돌봄 보육 지속 운영…대상·시간 확대

군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긴급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SOS 틈새돌봄 보육'을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2025년 4월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SOS 틈새돌봄 보육'은 부모의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 보육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까지 포함된다.

특히 기존 서비스는 가정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운영됐지만 'SOS 틈새돌봄 보육'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운영 시간도 평일 야간인 오후 6시~10시 및 휴일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이달 말까지 2026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3억원 규모의 '2026년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 참여자를 오는 1월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진 영농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건실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농업 인력 육성에 중점을 뒀으며, 총 21개 사업에 13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 5개 사업 △교과 및 농업인 단체 분야 7개 사업 △농산물 가공 분야 5개 사업 △농촌 체험 및 안전 분야 4개 사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상세한 사업 내용과 자격 요건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벤치마킹 우수정책 경진대회' 개최…9건 최종 선정

군산시가 시장 발전을 위한 실행력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2025 벤치마킹 우수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해 9건의 우수정책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자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체험한 후 시 여건에 맞게 정책을 재설계한 것으로,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

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9월까지 총 23건의 벤치마킹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국소별 1차 심사를 거친 9건이 최종 발표 사업으로 선발됐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군산시 제안심사위원회'가 평가를 맡았으며, △창의 융용성 △민주 편익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도시재생과의 '우수저류조 복합시설 조성'이 주민 편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단발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발굴된 정책들의 실행 시점을 정교하게 다듬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더 나은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가 지원 ‘고심’

전북대병원,군산시에 3백억원 추가 지원 요청 ‘지방재정 투자심사’

군산시는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병원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으로 인한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군산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지역 내 유일한 최첨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완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매년 약 3만 5천 명의



시민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의료비가 유출되고 있으나, 건립 후에는 환자 유출 방지는 물론 인근 지역 환자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시 약 1,3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 운영 단계에서도 대규모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현실

과 대학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대학교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을 전면 수용하기는 곤란하며, 2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가 필수적이며, 심사 결과 승인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보건소 ‘10관왕’ 전국 최고 수준

한의학건강생활·감염병 모자보건 등 정책 성과

익산시 보건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정부·공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정책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학 공공보건 분야 3관왕 △건강생활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감염병·예방접종·모자보건 등 필수 보건안전분야 수상까지 포함해 단순한 실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시스템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다.

우선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 연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

로 선정됐다. 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 실행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통계 기반 성과 측정, 시민 체감형 과제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강지표 향상과 정책 실행력 확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지역 기반 주민 참여형 건강가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부문에서도 총 3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한의학 보건정책 선도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작은 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수상 행진이 이어졌다. 함라산촌보건진료소는 2025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절 건강 △미술치료 등 함라산촌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며 주민 건강지표가 개선됐고, 지역 평생학습관 및 대학 연계로 '마을 건강공동체 상호지지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필수 보건안전정책 부문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4회를 수상하며 탁월함을 나타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도시 익산'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꼼꼼한 예산 감시로 ‘23억’ 절감

총 244건 공사사업 대상 22억 9900만원 절감

정읍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4건의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22억 9900만 원의 예

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절감 사유로는 각종 경비 비율인 제비율 수정, 설계 물량 조정, 세부 공사비 산출 기준인 일일대가 조정, 자재 물량 및 적용 단가 재산정 등이 꼽힌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분야별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과 기술감사팀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심사를 통해 18억 7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이끌었다. 이들은 제비율과 설계 물량, 자재 산정 오류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다하게 계산된 사업비를 조정했다. 정보통신과 전석우 주무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와 자재, 단가 항목을 세밀하게 검증해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

다. 건축과 윤세희 주무관은 기계와 전기, 문화재 분야의 설계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3억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설계와 실제 시공 간의 불일치 및 과다 산정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했으며, 세부 단가와 물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철저한 심사로 공공건축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 기반을 다졌다.

이학수 시장은 “예산 절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쓰기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복권기금 포함 총 1억 5,200만 원 투입

익산시는 복권기금 포함 총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아동양육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양육시설의 숙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노후 보일러와 난방 배관 교체, 바닥재 공사 등 기초 설비 개선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에어컨과 옷장을 새로 교체해 아동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의 노후 문제가 해소되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의 노후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아동이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신년사〉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 현장에서 전해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정책을 보완하는 소중한 기준이 됐고, 이는 정읍이 나아갈 방향을 차분히 다져주는 힘이 됐습니다.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정읍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통해 세대별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와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을



이학수 정읍시장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넓히고, 무성서원 유교수련원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운영, 내장호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공간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농업인 안전보합 지원과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행정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가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익산시,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먹거리 지킨다

식품·공중위생감시원 격려

익산시가 식품·공중위생감시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청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과 감사회를 실시했다.

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2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공중위생감시원들은 음식점과 숙박·아미음업소 등 공중위생영역소

약 9,0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시는 위생감시원의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를 위해 올해 활동에 적극 참여한 3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또 위생관리 현장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함께 활동한 위생감시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회를 진행했다.

채수훈 미식위생과장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준 감시원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영업소 위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과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학산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준공

얼고설린 전선과 투박한 전선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던 학산고등학교 통학로가 전선 없는 쾌적한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정읍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산고등학교 통학로 일대 지중화 공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묻고,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원인이었던 전선주와 통신주를 철거해 안

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약 39억원이 투입됐으며, 시와 각 기관이 비용을 공동 부담했다.

공사는 올해 3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9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이달 마무리됐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영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해,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

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부패취약분야개선 노력 성과…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우수기관 입증

전북 고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인 종합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고창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군단위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체감도 및 노력도 부문 모두 군단위 지자체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군수 주재로 관리직 공무원 간담

회·조직문화개선 전략회의 등을 열어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도 향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주요정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 내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인허가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후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펼쳐나가



고창=백종규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서 ‘새만금신항 제외는 위법’ 의견 대두

“계획재량한계 일탈…신뢰 보호비례원칙 위반 소지”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률, 행정 및 항만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 발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법적·정책적 쟁점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계획재량으로서 적합한 목표, 적절한 수단,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할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신뢰 침해가 있을 경우 계획보장청구권 등으로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배제하는 실익이나 효용성은 찾기 어렵다”며, “새만금신항 배제 논리는 현행의 매립지 상황에 따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법이 허용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 역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는 것은 계획 변경이 아니라, 파기에 가깝다”며,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역

설했고,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새만금위원회 심의 전에 김제·군산·부안 새만금 3개 시군 등과도 협의를 거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현석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항만을 새만금사업에서 분리하는 따로국밥식 행정은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자에게 불확실성(Risk)을 주고, 신항만을 통한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약화시켜 향후 RE100 실현가능성을 낮추며, 결국 새만금 MP를 양고없는 전방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조원의 변호사 역시 “단순히 항만 하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에서 ‘외부와의 연결 축’이 공백상태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형량

누락은 기본계획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항만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단순히 관할권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 버리면 끝날 사항이 아니다”며, “잰머리 파행이라는 우려곡절 끝에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만을 목표로 두고, 보다 치밀하게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항만은 공항·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고, ‘새만금사업법’에 대한 지나친 형식적 법해석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을 위한 최상위 법 정계획’으로 군간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세계 기후 관측망 공식 등록

장기 기후자료 생산 정책 활용 기반 마련

고창군과 기상청은 대산면에 위치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소속)’가 세계 기후 관측망에 공식 등록됐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기상관측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상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측해 장기 기후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축적된 관측자료는 재난 대응과 농업·환경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세계 기후 관측망 등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기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설·폭우 등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부안읍, 2025년 남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사업 완료

부안군 부안읍은 2025년 남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곳곳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주민 생활 속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안읍 남주골 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전점검을 함께 진행해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을 동시에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험지역 예찰은 예찰반의 현장 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안읍 관내 소하천 8개소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세심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전기 시설에 대한 방문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가스 안전점검은 약 600여 세대, 전기 안전점검은 약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스 차단기 설치와 노후된 전기 차단기, 실내 방등 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부안읍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 취약지역과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주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안=신성수 기자

《신년사》

“일비충천의 자세로 나아갈 것”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출향인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태양 이자평선 너머로 새만금을 비추며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해를 갈무리하고 올해 첫 발을 내딛는 모든분들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의 일상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합시다”라는 말은 거꾸로 해도 “다시 합시다”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은 이 말처럼 지난 해의 아쉬움을 푼듯 털고 다시 일어나면 그곳이 또 다른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길목에 서면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날아오르듯이, “다시 합시다”라는 말에 담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격려하며, 바람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지평선에서 시작된 우리의 꿈은 광활한 새만금을 향해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단련에 날아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이르는 일비충천(一飛沖天)의 자세로 김제시의 비상을 위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슴 벅찬 새해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새날을 맞이한 모든 분의 소망이 하나하나의 열매로 이어지는 한 해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화와 성장 이루는 미래 열어가겠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고창군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경사가 많았습니다.
꿈의 기업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 최첨단 물류센터 착공식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썬모나오펜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고창종합테마파크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향상과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희망찬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3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고창에서 일손을 도왔고,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성사시키며 박스같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수박농가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성원해주시는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고창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지텍, 에스비푸드 등 ESG기업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좋은기업 좋은일자리 생동하는 지역경제,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1번지,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양성,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구시로 붉은 노을과 함께 질주하는 적토마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병오년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AI 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대전환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부안군정은 이러한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하며 군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 노력은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으며 눈에 보이는 변화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물려 웅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재생에너지, AI, K-컬처의 세계 진출 등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 비전을 부안의 성장 기회로 적극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권현연 부안군수

부안은 이미 수소·풍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생태·정원·해양을 아우르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의 3중 위기 속에서 바람 연금, 햇빛 연금 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ESG 행정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며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청자 문화와 동학혁명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왔으며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내일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더 나은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 위에 군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사회 미래 모델 제시

‘기본소득’ 시범 성과협의회 출범
공모 선정 이후 청년 유입 효과
‘햇빛 펀드’ 등 기본사회 비전 소개

순창군이 지난해 12월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회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서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험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순창이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 실험실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500명 공론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회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고, 31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모바일형, 체크카드형, 선불카드형의 지급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최 군수는 순창군의 인구가 공모 선정 이후 948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20~49세가 39.7%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세대에게 순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이 추진 중인 ‘모두의 햇빛 펀드’도 소개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매월 1만 원씩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주민 배당과 사회서비스로 환원하는 구조로, 군민이 수혜자에서 투자자, 나아가 공동 소유자로 전환되는 선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 군수는 내년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담양군과 공동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지속가능 물 공급 시스템 구축 ‘성과’

상수도 전면 정비·공급 기반 강화
하수처리 안정·농촌 급수 확충

남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하수도·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친 정비와 시설 개선을 추진해 도시 기반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안정화, 상수도 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농촌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9개 구역, 총 79.4km 규모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해 노후·불량 관로로 인한 침수와 누수 위험을 줄였다. 남

원·운봉·인월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운영해 수질 변화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으로 연간 약 2억3천만 원의 운영비를 줄였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주요 공공하수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과 보수도 병행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 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총 20.2km 구간을 정비하고, 관리 구역을 33개 블록으로 나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반복 누수가 발생하던 주생·송동 지역 관로를 교체하고, 관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지관리 효율을 높

였다. 이 과정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5억9천만 원도 확보했다.

수돗물 공급은 월력정수장과 광역상수도를 통해 연간 약 1,018만 톤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했으며, 모든 수질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월력정수장에는 소형생물 대응 설비도 구축됐다.

농촌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9.2km를 확충하고 가압장을 설치해 급수 불안을 해소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도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과 물 관리 체계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청년농 등용문

영농·경영 실전 경험 제공
연매출 4억 4천만원 성과

순창군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이 청년 농업인들의 든든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9명을 대상으로 총 9개동(16,544㎡) 시설 온실을 임대한 결과, 연간 총매출액 약 4억 4,900만 원, 농가 순소득 2억 3,400만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신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재배 기술과 경

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현재 입차 청년들은 딸기, 메론, 고추, 엽채류 등 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딸기 재배 농가의 경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청년 자립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5,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노후 온실 보수(4,500만 원), 토양 개량용 목질퇴비 등 재료비 지원(900만 원), 작물별 전문 컨설팅(500만 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관비기 및 환경 제어 시스템 확

용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기후 변화 등 현장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중 영농 기반이 없는 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최대 3년간 임대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창업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 초기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토지와 시설 마련인데, 이 사업은 바로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청년들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아침독서 ‘대출 1,300권’…책임은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 542명 참여 1,318권 이용
우수 부서·직원 포상

완주군 ‘북모닝 아침독서’가 공직자 542명 참여, 1,300권이 넘는 도서 이용 성과를 거두며 책 읽는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완주군은 군수실에서 “2025년 북모닝 아침독서 운영결과 보고 및 우수 부서·직원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북모닝 아침독서는 출근 전 또는 근무 시작 전 짧은 독서 시간을 통해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추진해 온 완주군의 대표적인 독서 문화 사업이다.

올해 북모닝 아침독서는 완주군청, 완주소방서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542명의 직원이 참여해 1,318권의 도서를 대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상식에서는 아침독서 서가 및 자료실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최다 이용 부서인 교육정책과, 문화역사와 2곳과 박진용 사회복지과 주무관, 완주소방서 박국희 소방경, 김용환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수상 부서와 직원들은 꾸준한 독서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독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은 그동안 북모닝 아침독서를 통해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참여하고, 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시상 역시 단순한 실적 평가를 넘어, 독서를 통한 공직 역량 강화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북모닝 아침독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신년사〉

“남원 대변혁의 결실, 시민과 함께 완성할 것”

독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이 어받아 병오년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 승리와 번영을 이루시는 상서로운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든 올해, 저와 남원시 공직자들도 붉은 말의 기상과 돌격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성과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국내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남원은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도 지난해 경찰수련원 유치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인 4,321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며 남원 미래 100년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지력을 밑거름에 저는 새해 우리 8만 시민 여러분과 1천 5백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민선 8기 대변혁의 남원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추진과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2030년에 완공될 경찰수련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공기관 거점 도시 남원’으로써 더 비상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더 탄탄한 ‘드론·바이오산업 도시’ 실현으로 남원의 경제 지평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정주여건 확충을 통해 ‘청년이 정주하는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제로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7월 인제학당 개관과 피움 하우스 확대,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체감형 정주 여건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남원의 변화와 혁신은 이렇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 신년사〉

“有志竟成으로 10만 완주 경제도시 도약”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이어 온 결과, 지난해 36년 만에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며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피지컬 AI 실증사업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통해 완주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통해 청년·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체육, 아동친화 정책, 농업·농촌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전 분야에 걸쳐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각종 대외 평가와 수상으로 이

어지며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완주군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 피지컬 AI 산업 육성, 문화융합 선도산단 조성을 3대 역점과제로 삼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만 군민의 완주군이 경제도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 글로벌 수소·피지컬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완주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익식 완주군의회장 신년사〉

“和衷共濟” 완주, 갈등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완주군민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재정 위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센 파도를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맞이한 새해이기에 2026년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제 위기와 갈등의 언어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완주를 어떻게 더 살기 좋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새로운 첫 페이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완주군의회는 2026년 새해의 화두로 화중공제(和衷共濟)를 새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려움을 함께 건넌다”는 의미처럼, 의회와 집행부, 13개 읍·면,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다짐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새해를 맞아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품격을 지키는 의회가 되

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둘째,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완주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송전선로, 바이오가스, 우분연료화 시설 등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복지·교통·주거 전반에 기후적응과 에너지 복지를 녹여낸 조례와 예산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주민자치 1번지 완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완주군민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말의 기상 위에 화중공제의 뜻을 세워 완주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남원시에 1,000만원 기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안춘엽(한일종합중기 대표)이 고향인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대한적십자사 고객기부자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을 통해 이뤄졌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기부자 모임으로 안춘엽 회장은 전북 19호 회원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남원 소망의집과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나누어 활용될 예정이다.

안춘엽 회장은 “고향인 남원시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2026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춘엽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한 전주덕진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장, 전북교통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전 일로타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고래’ 소속 청소년과 정책 소통

유희태 완주군수가 최근 군청 군수실에서 관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완주군 청소년수련관과 고산 지역 청소년 시설 ‘고래’ 소속 청소년 9명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완주군이 추진해 온 피지컬 AI 교육, 바둑교실 운영, 아동권리축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작성한 편지와 작은 선물을 유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경험과 동아리 활동,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유 군수는 각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반영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꿈을 키우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드론·AI 스마트 영농관리 ‘농뷰’ 구축 성과 공유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뷰’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드론과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 영농 플랫폼 ‘농뷰’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농뷰’는 드론으로 수집한 고해상도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조사로 생산관리, 비닐하우스 현황조사,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올해 3월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2억 5천만원이 투입됐다. 드론과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약 70% 줄였으며, 농가 보조금 정산 정확도가 높아져 약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보고회에는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관련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결과와 농뷰 플랫폼 시연, 질의응답 및 실무자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담장 안 소년 ‘새 인생’ 꿈꾸다!”

자격증 10개 획득·대학 4곳 합격 전주소녀원 ‘소년의 기록’

법무부 전주소녀원은 ‘낙인’ 아닌 ‘회복’을 이끌어내며 한 소년 김 모 군(18세)을 변화시켜 2025.12.31일 입시퇴원을 만들어 냈다.

□ “집은 쉽이 아니었다.” 폭력과 결핍 속에서 시작된 삶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또래와 어울렸고, 술과 담배,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는 이어지지 못했다. 방치된 ADHD는 또래 관계에 집착하며 비행으로 이어졌고, 중학생이 되자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반복적인 가출 등 일탈이 반복됐다.

보호자 관리 공백 속에서 보호시설을 전전하다 김 군은 결국 2025.01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으로 전주소녀원에 수용됐다.

□ “어차피 우린 안 돼요.” ‘낙인’이 만든 마음의 감옥

“어차피 나가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저를 이곳에 보낸 판사님이 미웠고, 사회가 싫었습니다”

소녀원 입원 초기 김 군은 직원과 눈

도 맞추지 않았고,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작은 자극에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를 옥죄고 있던 것은 소년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내려버린 ‘인생 유죄’ 판결이었다.

그 낙인은 세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감옥이었다.

□ ‘처벌’ 대신 ‘관계·치료’ 기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전주소녀원의 선택은 강화된 통제나 징계가 아니라, 관계 중심 개입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ADHD 약물치료, 규칙적인 생활 관리, 운동·식단 조절을 함께 특히 컴퓨터 수업에서 두각을 보인 김 군은 교사의 작은 칭찬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수업 참여도를 높였다.

□ 자격증 10개, 성적 90점대..담장 안에서 쓴 반전의 이력서

직원의 칭찬과 인정이 더해지자, 컴퓨터 수업에 더욱 몰입하기 시작했고, SW코딩 자격증을 시작으로 ▷바리스타 ▷그래픽 ▷한국사 ▷한자 등 총 10개의 자격증을 휩쓸었다. 입원 초기 10점대에 불과했던 학과 성적은 90점대까지 향상됐으며 연달아 모범상도 받았다.

□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저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요!”

김 군의 꿈은 요리사다. 현실적인 등 록금 벽 앞에서는 직원과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이학준 사회정책 담당의 지속적인 노력에 여러 독지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약 35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했다. 소원했던 어머니 또한 정기적인 면회를 시작하며, 아들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기로 했다.

□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김행석 전주소녀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통해 소년원 출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과오 이후의 삶”이라며, “김 군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소년범들에게 ‘영원한 낙인’ 대신 ‘회복의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이 손에 쥔 10개의 자격증은 우리 사회가 이제 ‘낙인’보다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무언의 외침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는 비행의 이면에 존재하는 결핍과 상처를 이해하고 △교육 △치료 △관계 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때 보호소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적인 지도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태 기자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은 순창군에 재래감·곰창감 1,860상자를 기탁했다

의성한방병원, 순창에 3천만원 상당 김 기탁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은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재래감과 곰창감 1,860상자(3,0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탁했다.

한 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과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병원장님

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고향 사랑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순창을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주)창대아이엔지, 무주군에 1,000만원 기탁

(주)창대아이엔지가 지난달 29일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주)창대아이엔지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무주읍에서 수푸를 1차에 이어 2차 아파트를 조성 중이다. 지난 10월 무주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성덕호 대표는 “오늘의 고향사랑 기부가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라며 “수푸름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모든 입주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기 내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및 담례품(기부액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헬로. 위기브),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완주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 18년째 쌀 전달

18년째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이 올해도 완주군 용진읍을 따뜻하게 물들었다.

지난달 30일 완주군 용진읍은 크리스마스 직후 직원이 행복복지센터 앞에 편지 한 통과 함께 백미 10kg 60포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용진읍민들의 삶이 희망과 용기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얼굴없는 천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용진읍을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자의 뜻을 소중히 담아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백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용진읍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 청웅초 서연우 어린이, 용돈 모아 성금 30만원 기탁

임실군 청웅면 구고마에 거주하는 서연우(청웅초 5학년) 어린이가 지난 29일 청웅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서연우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돼지저금통을 기탁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금은 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면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연우 어린이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용돈을 모았다”며 “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부안군에 5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해 부안과 인연을 이어온 연구진이 지역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공공 기여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그동안 부안 상소산성 매장유산 발굴조사와 점방산 봉수유적 발굴조사 등을 수행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부안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산서면 지사협, 연말맞이성금 5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산서면에 기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돌봄 실천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소 지역 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중심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www.sgcenergy.co.kr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뤄가겠습니다.

SGC 에너지

SGC 이태크건설

SGC 송유선

SGC 그린파워

SGC 다벨로먼트

SGC 파인네스

〈一事一言〉



달리는 병오년의 문턱에서 다시 희망을 묻다

김관순
논설위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말의 해는 예로부터 역동과 도약,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용기를 상징해 왔다. 멈춰 서 있 기보다 달리고, 주저하기보다 방 향을 정하는 해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의 문턱에 서서, 지 난 시간을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 올 시간을 담대하게 맞이할 각오 를 나누고자 한다.

돌아켜보면 우리가 지나는 시 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세계 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 고, 경제의 기조 체력은 흔들리 며,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같은 구 조적 문제는 일상의 그늘로 깊숙 이 들어와 있다. 지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오래된 난제와 싸우 고 있고, 공동체의 신뢰는 곳곳에 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역설 적으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더 진지하게 불러내야 한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 시한 끝에 선택하는 태도이기 때 문이다.

병오년은 불(火)의 기운과 말 (午)의 기상이 만나는 해다. 불은 태워 없애는 힘이 아니라, 어둠 을 밝히고 길을 드러내는 에너지 다. 말은 혼자 달리는 존재가 아 니라,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목적 지로 향하는 동반자다. 이 상징을 오늘의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분 명해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를 연결해 공동의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 2026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새해의 희망은 거창한 구호에

서 나오지 않는다. 일터에서의 성 실험, 이웃을 향한 배려, 지역을 생각하는 선택 같은 작은 실천 에서 자란다. 기술과 산업의 변 화 역시 마찬가지다.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결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내하며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과정의 산물 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 성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다.

특히 지역의 미래는 선택의 연 속이다. 떠나야만 기회가 있는 곳 이 아니라, 남아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는 행정이나 정치만의 과제가 아 니라, 지역에 사는 모든 이의 몫 이다. 청년에게는 도전할 무대가, 어른에게는 존중받는 일상이, 아 이들에게는 안전한 내일이 보장 되는 사회를 향한 합의가 필요하 다. 병오년은 그 합의를 행동으로 옮길 적기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대의 가치다. 위기의 시대를 건 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의견 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멈추지 않 고, 이해관계가 달라도 공동의 이 익을 찾으려는 노력이 쌓일 때 사 회는 앞으로 나아간다. 말이 앞만 보고 달리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 나기 어렵듯, 우리 역시 속도보다 방향과 균형을 점검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역시 빼 놓을 수 없다. 오늘의 편의가 내 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장 의 방식과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 기후와 환경, 안전과 노동, 교육

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의제가 아 니다. 하나를 외면하면 다른 하나 가 흔들린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단지 오래 버티는 사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사회 다. 병오년의 불꽃은 그런 전환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실패를 대하는 태 도에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도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 지만, 실패를 낙인으로 삼는 사회 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혁신은 일상 으로 스며든다. 말이 넘어졌을 때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길 위 에 다시 일어설 공간이 있기 때문 이다.

다만 희망을 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선택만은 아니다. 희망은 때 로 책임을 요구하고, 그 책임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새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 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디고, 민 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새 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불신은 일 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에 병오년의 희망은 현실을 직시하 는 용기 위에서만 단단해질 수 있 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기다림의 희망’이 아니라 ‘참 여의 희망’이다. 누군가 대신 해 결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에서 벗 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

의 일부가 되려는 자세가 중요하 다.

오는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 방선거에서의 시민의 한 표, 소비 자의 한 선택, 언론의 한 문장, 행 정의 한 결정이 모두 사회의 방 향 을 바꾼다. 병오년은 그 작은 선택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사 실을 다시 확인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2026년은 이미 시작되었다. 희 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 어 가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풍경을 바꾼다. 작은 변화 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 름이 다시 개인의 삶을 밀어 올 린다. 병오년의 말발굽 소리가 힘 차게 울리도록,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자. 넘 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우고, 지치 면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방향을 잡자.

이 신년의 문장에서 약속하고 싶다.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 도,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겠다 고. 비판하되 냉소하지 않고, 기 대하되 무책임하지 않겠다 고. 독 자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함 께 답을 찾아가겠다 고. 병오년의 새 아침에 이 다짐을 가슴에 새긴 다. 2026년, 우리에게는 아직 충 분한 시간과 용기, 그리고 서로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사 설

반도체와 에너지, 분산 전략이 국가 경쟁력이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 언급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 방 이전 가능성은 단순한 ‘이전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구조적 문 제 제기다.

이를 두고 ‘현실 감각 없는 발상’이라 거나 ‘국가사업 흔들기’로 몰아붙이는 비판은 논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단견이다. 오히려 이 문제 제기는 수도권 기업 분산 정책, 지방소멸 위기 대응, 그리고 지산지소 원칙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정확히 맞닿 아 있다.

우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대원칙 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 지 재검토는 충분히 공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자 장기 산업이다. 2019년 수립된 계획이 2030년대 이후의 전력 공급,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반도체 공장 한 곳에 원전 수심 기에 준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를 계속 집적시키 는 기존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준다. 국가 전략 사업일수록 환경 변화 에 따라 점검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 다. 새만금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도 이번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반도 체 클러스터는 단일 공장이 아니라 이 를 떠받치는 소부장 등 수많은 협력기 업과 연구 인력, 정주 인프라를 동반한 다. 이는 곧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인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전략 산업 거 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

니라 지방에 미래 먹거리를 심는 일이 다. 이를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 로 격하시키는 시각은 국가 균형 발전 에 대한 상상력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의 부합성도 분명하다. 현재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 는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며 송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설 지연 과 주민 갈등, 계통 불안이라는 문제를 반복해 왔다.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을 가깝게 하는 지산지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산업의 ‘속도’만을 이유로 이 원칙을 뒤로 미루는 것이 과 연 현실적인 선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 하다는 주장 역시 과도하다. 간헐성 문 제는 에너지 저장장치, 그린수소, 계 통 보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재 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비현실적 실 힘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 산업 흐름 을 외면한 주장에 가깝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속도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향 없는 속도는 오히려 위험하다. 수십 년을 버 터야 할 산업을 단기 완공 논리에만 맡 기 수는 없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확 정된 계획을 뒤엎자는 선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에너지 구조를 고민 하자는 문제 제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급기가 아니라 토론 이며, 고집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 다. 반도체 강국의 길은 수도권 집착이 아니라, 분산과 공존 속에서 더 단단해 질 수 있다.



오늘의시

까치소리 / 신 경 립

간밤에 앓은 씨락눈이 내렸다
전깃줄에 걸린 차고 흰 바람
교회당 지붕 위에 맑은 구름
어디선가 멀리서 까치 소리
씨락눈을 밟고 골목을 걷는다
큰길을 건너 산동네에 오른다
습기찬 판장 소란스런 문소리
가난은 쯤체 벗어나지 않고
산다는 일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몸부림 속에서 따뜻한 손들
뜰판에 팽개쳐진 이웃들을 생각한다
지금쯤 그들도 까치 소리를 들을까
소나무숲 잠복숲의 철 이른 봄바람
학교 마당 장터 골목 아직 매운 눈바람
씨락눈을 밟고 산길을 걷는다
철조망 팻말 위에 산뜻한 햇살
봄이 온다고 봄이 온다고
어디선가 멀리서 까치 소리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낯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원적지’, ‘산유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 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립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 특별기고 |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에서 확인된 가야의 잔상



‘일본’이 라는 이름 을 들으면 많은 이들 이 “가깝 고 도 먼 나 라” 라 는 말 을 떠올린다.

지리적으로는 바다 하나를 사이 에 둔 이웃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남겨진 아픈 역사적 기억 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의 층위를 만들어 놓았다.

필자는 최근 장수군 고대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가야 역사 자원의 실체와 그 의미를 직접 눈 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았다. 아시아 최대의 도 시답게 거리는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는 분주한 일상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답사의 마지막 날,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일본의 대표적 문화 기관인 국립도쿄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이었다. 1872 년(메이지 5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 박물관으로, 본관·도요칸·효케이 칸·헤이세이칸·호류지박물관 등 여러 전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헤이세이칸에는 아시아 각 국의 고고학 유물이 전시되어 있 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

전시된 고고 유물 가운데 일부 가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을 비롯 한 우리 지역의 가야계 유물과 매 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이다. 안내문에는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 사회의 물 질문화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일본의 대표 박물관에서 이처럼 솔직하게 ‘가야의 영향’을 명시하 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눈길을 사로잡은 것 이 하나 있었다. 바로 ‘5·6세기 한 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지역의 교 류 관계’를 나타낸 지도였다. 그 지도에는 철기문화와 제례문화의 확산 경로가 한눈에 표현되어 있 었고, 백제·신라·가야 등 한반도 의 고대국들이 일본열도와 긴 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 지도 속 ‘가야(伽倻)’의 중심 위치 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에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 다. 부안 죽막동유적(지도 표기명 ‘죽교동유적’)이 명기되어 있었고 ‘고령(대가야)’과 ‘김해(금관가야)’가 각각 별도로 표기된 가운데, ‘가야의 핵심점이 장수군으로 찍 혀 있었다.

동행한 일행 모두가 동시에 외 친 말은 “유레카!”였다. 왜 일본의

국립박물관 지도에서 가야의 위 치가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을 까?

곧바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 도 쿠라 세이지가 장수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도굴을 감행했던 사건,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조 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報)』에 기록된 장수의 ‘토만두형 고분’ 자 료가 떠올랐다. 혹시 그때의 조사 기사가 일본 학계에 남아, 후대 지도 제작 과정에 반영된 것은 아 닌까 하는 추측이 자연스레 나왔 다.

주말이라 박물관 학예사와 직 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가야의 중심이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 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발견이었다.

지금까지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유일하게 가야문 화가 전해진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삼봉리 고분군, 대적골 고분 군 등 수많은 유적이 국가사적 및 도 기념물로 지정·보존되고 있으 나, 그동안 사료의 부족 탓에 ‘가 야의 변방’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 표적 역사박물관, 그것도 국립기 관이 장수를 가야의 중심 위치 중 하나로 표기했다는 것은 결코 가 법계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

게 되었다. 가야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그 미 완의 역사를 풀어낼 열쇠가 바로 장수군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늘날 장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야·백제·마한·신라·후백제 다섯 역사문화권이 공존 하는, 말 그대로 ‘고대문화의 융광 로’이자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지, 문명의 교차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장수군이 선제적 인 적극행정을 통해 역사문화 자 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 으로 보존·활용해야 함을 시사한 다.

국립도쿄박물관의 그 지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 하다. 이제 장수군은 가야문화를 포함한 다섯 역사문화권의 실체 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이 어가야 한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 의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도, 새 롭게 조명될 수도 있다.

“장수군의 역사는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밝혀 내야 한다.” 이 문장은 지금, 장수군 이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이자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최훈식 장수군수

본 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타임즈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hr/>		
발행, 편집인 송민순		

[2025 전북교육 결산]

학력으로 증명하고 책임으로 완성하다

2025년 전북교육은 학력연구 감소와 기초학력 저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공교육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성과로 보여준 한 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 학교, 교실혁명, 행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전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왔고, 그 결과는 교실과 학교, 그리고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편집자주)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8년 만의 수능 만점자 배출, 전북교육 학력신장 성과가 교실에서 증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북에서 8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다. 더 주목할 점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재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북 공교육의 학력신장 정책이 교실 안에서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어와 영어 모두 난도가 높았던 이른바 '불수능'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사교육이나 선별된 환경이 아닌 공교육 중심의 학습 시스템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 기초에서 기본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떠받친 학력신장 정책
수능 만점이라는 결과 뒤에는 전북교육이 지난 몇 년간 차근차근 쌓아 온 학력신장 정책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모든 학생의 학습 기본권으로 보고, 초·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학력진단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1수업 2교사제, 학습지원센터, 두드림학교, 15개 권역 학력지원센터로 이어지는 다층적 학습안전망을 구축하며, 학생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중·고 29.3%, 중·고 11.3%, 고 9.0%가 감소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독서·인문교육 강화도 학력신장의 토대가 됐다. '아침 10분 독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독서량은 50권, 도서 대출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읽기가 쓰기와 말하기로 확장되는 학습 문화가 학교 일상

에 자리 잡았다. 전북교육이 추구해 온 학력신장은 성적 향상에만 머물지 않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성과로 증명된 정책의 힘



교실에서 나타난 변화는 국가 단위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다. 전북교육청은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AI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의 본질과 직결된 핵심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률 100% 달성,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은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는 학업 성취와

학습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은 특정 정책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학력·돌봄·미래교육·안전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를 균형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AI 기반 미래교육... 학력 격차를 줄이는 교실 혁신으로
전북교육은 2025년을 기점으로 AI 기반 미래교육의 토대를 현장에 안착시켰다. 3년 전 21%에 불과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025년 100%를 달성했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과 고속 무선망이 구축되며 수업 환경의 기본 인프라가 완성됐다. 이는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교실 수업의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교육청은 디지털 전환의 중심을 '기기'가 아닌 교사와 수업에 두었다. 4만 9천여 명의 교원이 디지털·AI 연수를 이수하며,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속도에 맞춘 수업 설계 역량을 키웠다. 전북미래학교는 2023년 16개교로 시작해 2025년 146개교로 확대되었으며, 교실 혁신을 일상적 수업 모델로 확산하고 있다.

◆ 책임교육... 돌봄에서 포용까지, 모든 아이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다
전북교육은 학력과 미래교육이 교실 안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책임교육'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성과가 전북형 돌봄학교다. 초·중·고 1학년 참여율 93.7%, 학부모 만족도 98%를 기록하며 돌봄 대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했고,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책의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계한 운영 구조로 학교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임교육은 돌봄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137학급을 신·증설해 총 832학

급을 운영하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는 단순한 학급 확대를 넘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 지원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을 통해, 언어와 환경의 차이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육이 말하는 책임교육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끝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특수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으로 배움의 출발선을 맞추는 과정은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을 분명히 보여준다.

◆ 청렴으로 완성한 신뢰... 공정한 행정이 교육의 힘이 되다

전북교육의 2025년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성과는 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이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모든 세부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행정 전반의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이는 단기적 반등이 아닌 행정 구조 전환의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청렴을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전북교육청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전담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정책 기획부터 실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청렴도 개선은 행정 내부에 머물지 않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자, 학력신장과 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반이다. 전북교육이 학력과 책임교육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한 행정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전북교육은 학력으로 성과를 증명하고, 돌봄과 안전으로 책임을 확장했으며, 청렴으로 신뢰를 완성한 한 해였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체감도를 더욱 높여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전북교육이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지켜갈 약속이다.

/최성민 기자

[인터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현장의 신뢰를 기준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완수하겠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2025년 전북교육을 “공교육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성과로 증명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은 단일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학력·돌봄·미래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이 실제로 변화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8년 만에 배출된 수능 만점자와 관련해 유 권한대행은 “일반고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교육 중심 학습 구조 안에서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학습 경로가 교실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에서 기본으로 이어지는 학력신장 정책과 교실 수업의 변화가 학생의 노력과 맞물려 성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은 학력을 일부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 기본권으로 접근해 왔다”며 “전면 학력진단과 다층적 지원 체계는 서로 다른 속도와 수준의 학생을 교실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구조”라고 말했다. 독서·인문교육 강화 역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학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AI 기반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2025년은 인프라 구축을 넘어 수업 변화로 이어진 해”라며 “교원 연수와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학습 격차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책임교육과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돌봄학교와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행정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청렴을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7년 만의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이 추진해 온 학력신장, 전북형돌봄,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복지 강화는 정부 국정과제와 같은 방향 위에 있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더욱 정교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정책은 속도보다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공백 없이 정책을 이어가고 필요한 보완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멈출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지켜 공교육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핵심소재 기업

OCI는 기초화학,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GLOBAL LEADING ADVANCED
MATERIALS COMPANY